

# 자율관리어업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9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7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박재영 ■ 기사·편집 : 경영본부장 최광림

## 2016년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

### ‘자율관리 공동체 질적 성장에 주력’

#### 교육·홍보사업 실효성 위주로 방향 전환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관리어업이 15년째를 맞고 있다. 2001년 출범당시 63개소 5000여명에 불과한 자율관리 참여 어업인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129개소 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참여공동체의 양적 확산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고, 육성사업비 수혜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근본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사업추진 방향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두기로 했다.

잘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공동체는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등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홍보사업의 경우 지역별 워크

숍 등 행사성 교육을 축소하고, 성공사례 교육, 수산자원 보전관리 방안 등 실효성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컨설팅 운영은 지역별 일괄 할당 방식은 축소하고, 신규공동체 지원 및 상품브랜드 개발 등 전문분야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 갈등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는 갈등 및 분쟁 내용에 따라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수협중앙회의 공동체 교육사업은 어업인의 편의성을 감안, 지급과 같은 집합교육 이외에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는 갈등·분쟁의 내용 등에 따라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바다에 꿈, 희망, 미래 있다” 2016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1월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김영석 장관, 김임권 회장, 이윤재 회장 등 주요인사들이 축하역을 자르고 있다.

### 해수부·한수총·전해총 공동주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한국수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김임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전해총, 회장 이윤재)는 1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6년 해양수산가족신년인사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이재익 국회의원, 조정제 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전

직 장관, 해양수산 기관 단체인, 전국수협 조합장, 이덕화 해수부 낚시 홍보대사, 김승진 명예홍보대사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해수부 김영석 장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첨단양식기법 개발과 대량생산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개발, K-FISH 마케팅 강화 등으로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신년사 ‘한·중 FTA, 수산업 수출 증대 계기로’

지난 연말에는 협상개시 선언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한·중 FTA 비준안이 공식발효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노심초사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애써왔지만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새해에는 우리 수산물의 수출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비록 새해도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3억의 큰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제유가의 하락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수산업계의 비용절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이를 계기로 경영합리화 전략수립에도 매진해 ‘희망있는 산업, 도전해 볼 만한 산업’으로 우리 수산업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한해 공동체 어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박재영 한국수산회 회장

### 알림

####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원고 모집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01년 실시된 이후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참여의지 및 정보공유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과 관련, 전국의 어업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공동체 주요 활동사항, 성공사례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체 어업인을 비롯, 자율관리어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 모집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및 관련 단체, 지자체 업무담당자
- 내용 : 자율관리어업 개선방안, 성공사례, 공동체 주요활동 등
- 마감 : 매월 30일

※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 살맛나는 바다!

##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 조정목적

-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

### ■ 조정대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간 분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 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 분쟁대상 현지 실태조사 → 분쟁조정 과제 선정 → 과제별 조정 실시 → 사후관리



### ■ 분쟁조정 사례

- 진도 가사어촌계(가사1,2,3구)간 지선경계선 획정 분쟁(2015)
- 부안 진리어촌계와 벌금어촌계간 관할구역 분쟁(2015)
- 경북 포항 연안연승어업협회와 자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2015)
- 완도 노화 내리 공동체와 마안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쟁(2014)
- 진도 신전공동체와 죽향도 어업인간 어촌계 분할분쟁(2014)
- 당진 장고항 공동체와 화성 국화도 공동체간 연안어업 조업수역 분쟁(2014)
- 후포·강구 자망협회와 구룡포·감포 통발어업자간 분쟁(2014)
- 강화군 구획어업 조업구역 분쟁(2014)

※분쟁조정비용은 무료임.



2015년 신규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마을어업 20개 공동체 포함, 43개 공동체 신규 참여

지난해 43개의 공동체가 신규로 참여해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수는 1129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신규 참여한 43개 공동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을어업 20개소, 어선 13개소, 복합 2개소, 양식

4개소, 내수면 4개소이다.

시도별로는 인천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4개소, 충북 1개소, 충남 8개소, 전북 2개소, 전남 4개소, 경북 1개소, 경남 19개소로 집계됐다.

다음은 지난해 신규 참여한 공동체 현황이다.



지난해 신규로 43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함으로써 2015년 말 현재 공동체 수는 1129개소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 안산시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부열)**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로 5-14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2.23 / 13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자망, 복합)
  - 대상어종: 넙치, 꽃게
  - 사업규모: 경기인천전선
- 화성시 김양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정규학)**
  - 소재지: 경기 화성시 왕모대길 164-14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16 / 23명
  - 공동체 유형: 김양식어업
  - 대상어종: 김, 바지락
  - 사업규모: 820ha, 40ha
- 단양 남한강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진혁)**
  - 소재지: 충북 단양군 삼봉로 644-1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16 / 10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오도리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이달문)**
  -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339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20 / 27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전복, 해삼, 미역, 홍합, 성게 등
  - 사업규모: 43.7ha
- 아산호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장영수)**
  - 소재지: 충남 아산시 충무로 1769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30 / 22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대상어종: 붕어, 잉어, 뱀장어, 동자개 등
  - 사업규모: 어선 11척
- 원청 자율관리공동체(대표 박원기)**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인민대로 1346-58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28 / 74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해삼, 전복, 주꾸미
  - 사업규모: 47ha, 5척
- 천리포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신대욱)**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천리포1길 236-2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30 / 59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해삼, 전복
  - 사업규모: 54.8ha
- 의항2구어민회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동실)**
  - 소재지: 충남 태안군 송의로 841-4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4.30 / 25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꽃게, 홍어, 봉장어, 우럭, 놀래미
  - 사업규모: 어선 25척
- 거제북부 연안자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윤치환)**
  - 소재지: 경남 거제시 어은2길 7-8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6 / 21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전어, 도다리, 대구 등
  - 사업규모: 연안자망 20척
- 고성 가리비양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윤태준)**
  - 소재지: 경남 고성군 해명길 62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7 / 10명
  - 공동체 유형: 양식어업(수하식 채종양)
  - 대상어종: 가리비
  - 사업규모: 19.7ha
- 고성만 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종현)**
  - 소재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7 / 13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연안통발)
  - 대상어종: 문어, 게, 봉장어
  - 사업규모: 어선 13척

- 선소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현욱)**
  - 소재지: 경남 남해군 선소로 119-9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7 / 8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파조개, 새고막, 바지락 등
  - 사업규모: 양식어업 2건, 마을어업 1건 102ha
- 금송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이상수)**
  - 소재지: 경남 남해군 동부대로 1697-0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7 / 20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굴, 바지락, 개조개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1건 38.5ha
- 대포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이창은)**
  - 소재지: 경남 사천시 대포길 255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6 / 122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전복, 해삼
  - 사업규모: 49.8ha
- 사천시 비토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진권)**
  - 소재지: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88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6 / 61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바지락, 전복, 해삼
  - 사업규모: 51.7ha
- 통영담포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강연우)**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술미길 70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6.30 / 28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해삼, 전복, 바지락
  - 사업규모: 45ha
- 연기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장동주)**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연기길 352-0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8.26 / 45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사업규모: 52.8ha
- 통영양지패류양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송광주)**
  - 소재지: 경남 통영시 도산일주로 1321-0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6 / 11명
  - 공동체 유형: 양식어업
- 통영문어단지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손희홍)**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안개3길 56-302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08 / 14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문어단지)
  - 대상어종: 문어
  - 사업규모: 14척
- 죽도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범순)**
  - 소재지: 전북 고창군 죽도길 37-20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19 / 2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패류양식)
  - 대상어종: 가무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 사업규모: 821/73.4ha
- 고마제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종필)**
  - 소재지: 전북 부안군 내기산동길 16-8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5.19 / 6명
  - 공동체 유형: 내수면어업
  - 대상어종: 붕어, 잉어, 가물치 등
  - 사업규모: 70ha
- 팔봉 자율관리공동체(대표 황기연)**
  - 소재지: 충남 서산시 범머리길 368-5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6.10 / 85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마을어업(바지락, 꼬막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183ha, 어선 70척

- 아차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최재석)**
  - 소재지: 인천 강화군 아차도길 111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06.12 / 29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대상어종: 굴, 꽃게, 조피불락, 농어 등
  - 사업규모: 마을어업 1건/20ha, 어선5척
- 신보령연안개량인강명어조합법인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철수)**
  - 소재지: 충남 보령시 요암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14 / 29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상어종: 꽃게, 광어, 기타
  - 사업규모: 어선 29척
- 떡섬목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형기)**
  - 소재지: 충남 서천군 서면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14 / 3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패류 및 해삼양식)
  - 대상어종: 패류, 해삼
  - 사업규모: 마을어업 3건 20ha
- 송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공무철)**
  - 소재지: 충남 서천군 마서면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14 / 176명
  - 공동체 유형: 복합어업
  - 대상어종: 패류, 어류, 해태 등
  - 사업규모: 양식어업 5건 238ha, 마을어업 10건 115ha, 어선 60척
- 진해안골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이상찬)**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19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사업규모: 어선 19척
- 진해피조개양식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흥주)**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13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고현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김형수)**
  -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38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통영백학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이교민)**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사량면 하도일주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20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통영근해연승협회 자율관리공동체(대표 허문기)**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21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대항 자율관리공동체(대표 강신재)**
  - 소재지: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대항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10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통영가리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박동환)**
  - 소재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중림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12명
  - 공동체 유형: 양식어업
- 거제정치마을 자율관리공동체(대표 노재곤)**
  - 소재지: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31 / 20명
  - 공동체 유형: 어선어업
- 석두 자율관리공동체(대표 손홍주)**
  - 소재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길 663
  - 참여일자 / 참여인원: 2015.12.11 / 42명
  - 공동체 유형: 마을어업
  - 대상어종: 굴, 바지락, 갯지렁이, 낙지 등
  - 사업규모: 183ha

특 별 기 고

## 자율관리어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제2의 새마을운동’, ‘새어촌 운동’으로 출발한 자율관리어업인 출범 15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어업인 공동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 관련 법령보다 엄격하게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한편 마을과 마을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공동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판매나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등 마케팅을 접목한 경영개선에 힘을 쏟아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보다 중요한 자율관리어업의 가치는 어업인들의 의식변화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작은 치어라도 먼저 잡고보자는 무주물 선점의식이 팽배했다면 지금은 바다자원은 가꾸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비록 불법어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적 가책을 느낀다는 점이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여러 수산정책 중 효과대비 투입예산과 기간을 감안할 때 이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올해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 어려움에 봉착했다. 공동체에 대한 육성사업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자율관리어업이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체제 재편 필요

첫째, 자율관리어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 도입된 지 15년째를 맞고 있지만 사업추진 체제는 양적 성장 중심으로 구성돼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견인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강제적 관리보다는 어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방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둘째, 자율관리공동체의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육성사업비 지원체제 재편이 필요하다. 지원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육성사업비 지원 방식의 다변화, 다른 수산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차별화된 공동체 육성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성사업비 지원은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대내외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수 및 참여 어업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운영실태 및 평가 DB 미구축으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실태 및 활동실적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에 기초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홍보 자

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지원 없는 자립성 높은 자율관리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체별 차별화 방안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전문적 컨설팅 확대를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자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개선과제로는 현행 통합평가 체계를 세분화해 평가체계의 전환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평가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지역별, 형태별, 유형별 각기 다른 형태의 자율관리 공동체가 존재하므로 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체 위원장 중심 교육을 참여자(구성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자율관리어업의 외부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역량 보유기관으로의 교육기능 통합, 정부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관광객 몰려드는 어촌체험마을 ... 지난해 100만명 돌파

### 해수부, 체험프로그램 및 방송홍보에 주력



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어촌사회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같은 어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는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방송홍보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106개 어촌체험마을이 침체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차 산업에 의존한 소득구조로 침체에 빠졌던 어촌이 어촌체험마을로 진화하면서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전국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은 2012년 75만명에서 2014년 88만명,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해수부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올해부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관서비스체험음식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낚은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정비하려는 취지다.

등급심사를 받은 마을에는 ‘행복한 어촌’ 문구와 부문별 등급을 별(★)로 표시한 현판을 수여한다.

해수부는 현재 106곳인 어촌체험마을을 매년 6~7곳씩 늘려 2018년까지 13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는 어촌문화 스토리텔링, 바다요리와 같은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과 tvN 삼시세끼와 같은 방송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가 지난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사업은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5개소),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도입(15.6), 어촌 찾아가기 행사(2,051명),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8개), 바다해설사 양성(35명) 등이다.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업무협약 체결

### 사업규모 26조 1523억원 ... 전년대비 1조 3636억원 증가



1월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과 8개 낚시매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해수부 낚시홍도대사인 배우 이덕화씨도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낚시방송 등 8개 낚시전문매체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낚시자원안전환경을 생각하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 하에 낚시 선진인식 함양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민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낚시매체에 낚시 정책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낚시매체들은 낚시 자원안전환경에 대한 다양한 프

로그램의 제작편성 및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낚시체험교실, 낚시안전교실,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낚시인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낚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초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자조금사업 대폭 확대

## 새해 7개 품목 추가 ... 15개로 늘려 연안어업 생산품목 대상에 첫 포함

새해부터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조금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김, 넙치, 전복과 함께 내수면 양식어종 5종 등 모두 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해오던 자조금사업 대상에 올해 양식품목 중 △미꾸라지 △새우 △홍합 △바지락 4개 품목과 함께 처음으로 연안어업 생산품목인 △꽃게 △오징어 △자연산 새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돼 지난해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이 국고 및 업계 부담 50%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이 올해부터 신규 품목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는 각 품목별 업계와 함께 사업규모 등을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재해 발생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과 함께 '어업인 안전쉼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종전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가에 대한 근로도우미 지원기간도 2일에서 10일로 대폭 늘린다.

# “5톤 미만 소형어선, 조업보고 간편해진다” 1월일부터 무선통신으로 조업상황어획실적 보고 가능



1월일부터 5톤 미만의 소형어선도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통신을 통해 조업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5톤 이상 어선만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조업보고가 가능했지만 이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의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통신을 통해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어업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조업보고 방식과 대상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상황 보고규칙'에 따라 어업활동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등에 대한 '연근해어업 보고서'

를 시·군·구 또는 수협(업종별·지구별)에 제출해야 했다.

다만,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5톤 이상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을 보고하면 연근해 어업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5톤 미만의 어선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업상황 보고규칙의 개정으로 약 3만8000여척의 5톤 미만 어선의 어업인도 편의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선통신을 이용해 조업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 거제 계도어촌계·죽왕 어호어촌계

# 2015년 도시어촌교류상 수상



2015년 도시어촌교류상 시상식이 12월22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열렸다. 어촌계부문에는 거제 계도어촌계와 죽왕 어호어촌계가 도시와 어촌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5년 도시어촌교류상 어촌계 부문에 거제 계도어촌계와 죽왕 어호어촌계가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도시어촌교류상은 도시와 어촌교류 활성화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통령상은 봉사단체인 '사랑그루터기 봉사단'이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랑그루터기 봉사단은 2010년 만홍어촌계 지역주민 집수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흥어촌계 등 13개 어촌계와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22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열렸다.

# 수입 물고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e-book 발간

## 수입 수산물 증명과 원산지 클릭 한번으로 확인

국립수산물과학원(원장 강준석)은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정확한 증명과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책자(e-book)를 발간했다.

이번에 개설한 e-book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어류(84종)의 형태학적 분류와 유전정보(DNA)를 활용하여 정확한 종 분류 기준을 정리해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지난해 2월에 발간한 '수입어종 분류기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자는 국내 유사어류와 쉽게 구

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분류기준을 설명한다. 수입어종 중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는 32종은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고, 불명확하게 불리는 수입어류명은 표준화시켰다.

이번 e-book 개설은 종이책 형태인 '수입어종 분류기술서'에 대해 수입업체와 수산관련 분야에서 관심과 문의가 많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어종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자료를 개방한 것이다.

# 어업소득 비과세 2천→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2월부터, 양식·연근해·내수면어업 종사자 혜택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월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확대를 위해 노력한 최재천(무소속)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는 2월부터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금액이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돼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연간 80~90억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 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해 앞장 선 최재천(무소속) 의원에게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어업인 재해대비 '어업인안전보험' 나왔다

## 어업인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상품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보장 범위를 넓힌 어업인안전보험이 1월7일 출시됐다.

어업인안전보험에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 1000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기존 민간보험상품인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많아졌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임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유지된

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장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보험 가입 대상에 천일업 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은 누구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어업인이 안전재해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은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2016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규사업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 자조금사업 대상품목 7개 추가

올해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기존 5톤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되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를 발표했다. 이 내용과 함께 새해 예산증액 및 신규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조금사업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제도 변경

복지분야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약 1만1000명의 어선원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가에 대한 근로 도우미 지원기간도 2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의 수산인 안전공제제도를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개편하고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3종의 보험급여를 신설해 보장을 강화한다.

환경분야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 온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번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지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도 기대된다. 한편 지금까지 해양 투기량은 2012년 228만㎥, 2013년 116만㎥, 2014년 49만㎥, 2015년(11월까지) 25만㎥ 등이다.

산업분야

터빈 개발, 구조물 설계 및 시공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제주 용수리 시험파력발전소(500kW급)에서 생산한 전력을 120가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노후 선박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시행한다.

교육분야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을 종전 대전, 세종시에서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 운영, 평소 바다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륙지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산 신규·증액사업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투자확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8개)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및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또 연안지역 재해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울산 동구 고늘지구와 강원 삼척 원평지구에 대해 실시한다. 여기에는 향후 4년간 각각 291억원, 24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안가 오염과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260억원(국고 208억원, 지방비 52억원)을 쏟아 제주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

설한다.

갯벌 기능을 회복시켜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남 태안 및 전남 순천 갯벌 복원사업도 실시한다. 여기에는 3년간 각각 28억6000만원, 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먼저 귀어귀촌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체류형 학습을 위한 귀어학교를 개설하고, 귀어촌 홈스테이 비용도 지원한다. 또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재해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시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 자조금 품목이 확대된다.

이 가운데 현재 8개 품목에 대해 실시 중인 자조금사업의 경우 미꾸라지, 새우, 홍합, 바지락(이상 양식), 꽃게, 오징어, 자연산 새우(이상 연안어업) 등 7개 품목을 추가, 15개 품목으로 늘린다. 또 조건불리수산 직불제를 제주 분섬까지 적용, 약 3000여가가 추가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양안전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원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한 해상 원격의료 지원사업이 종전 6척에서 20척으로 대폭 확대되며, 부산항 신항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2년간 184억원을 들여 숙소 등 복지지원시설을 신축한다.

2015년 김 수출액 3억500만달러 달성

전년비 11.3% 증가 ... 수출 농수산물 중 최고 2월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행사 개최 예정

지난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3억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김덕술)는 2015년 김 제품 수출실적이 3억5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2억74만달러보다 11.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농수산물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7208만7000달러로 전체의 23.6%를,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6642만8000달러로 21.7%를 점유하며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이 5118만3000달러로 16.7%를, 태국 3810만5000달러로 12.5%를 점유했다. 이밖에 국가별 순위는 대만, 캐나다, 홍콩, 호주, 러시아

순이었다.

전년 수출금액 대비 증가율을 보면 중국 46%, 대만 44%, 베트남 34%, 인도네시아 51%로 대폭 신장된 반면, 러시아 -27%, 일본 -13%, 말레이시아 -8%로 감소했다.

김 제품 수출물량은 2014년 1555만5540kg에서 2015년 1776만5966kg으로 14%가 늘어났다. 수출국은 2015년 92개국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건강식품과 간식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산업연합회는 오는 2월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회 김의 날 및 수출 3억달러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30년 지속돼 온 산업폐수·오니 배출 차단

30년 동안 계속돼 온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던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를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6년 발효된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 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이

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폐수오니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자 간담회 개최, 현장컨설팅, 환경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2005년 1000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2015년에는 25만㎥으로 줄어들어 2005년 대비 97.5% 감소하는 등 연평균 30% 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는 모든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가 육상전환을 완료해 해양배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2016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 해수부, FTA 활용 김·어묵 등 수산물 수출확대

## 어촌·어항 관광자원화, 명태·병어·옥돔 등 어종 복원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월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해양수산부를 비롯,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 수산제품의 대(對)중국 수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 어묵 등 유망제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 개설 등 홍보 강화, 우리 물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내륙 유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최초로 수출 3억달러를 초과한 김은 신규 양식면허 허용으로 생산을 늘리고 미국과 중국 대형마트를 지속 공략해 맞김 수출을 확대한다.



1월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오른쪽 첫 번째) 등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14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 7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어묵은 가공용 장미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어묵고로케, 우동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급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과 상업생산을 늘리고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참다랑어는 일본에 이어 세계

에서 2번째로 종자생산에 성공해 종자 1400여마리를 육성 중이며 종자 민간보급 및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연어는 올해 중 본격출하(700톤) 및 중국 내 시장테스트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종묘생산 및 방류 등)해 명태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도록 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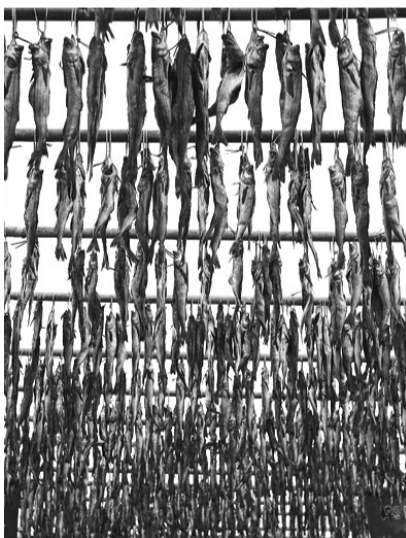
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린 명태 1만5000마리를 동해안에 방류했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말쥐치, 병어, 옥돔 등의 어종도 살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출 확대 외에도 어촌·어항을 관광 자원화하고 UN식량농업기구 세계수산대학 유치 추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포커스

# 국내 최초 육상 생산 명태 치어 방류

## 해수부·강원도, 강원 고성 앞바다에 ...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명태를 덕장에서 말리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육상에서 생산한 명태 치어(어린 물고기)가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방류됐다. 이로써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 자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지난 12월 18일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에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치어 1만 50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 10월 고성군 연안에 지정된 보호수면(21.49km<sup>2</sup>)과 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생산된 명태 치어가 12월18일 명태보호수역으로 지정된 동해 저도어장 인근 해역에 방류되고 있다.

인근 해역에서 이뤄졌다.

또 지난 12월 말 고성군 연안의 해상가두리 시설에 추가로 5000마리를 방류해 현장에서 명태 회복에 관한 종합적인 생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해수부와 강원도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미명태 사육과 명태의 인공종묘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내산 어미명태로부터 확보한 수정란을 부화시켜 지금까지 어린 명태 약 3만9000마리를 사육 중에 있다.

프로젝트 첫 해인 2014년에는 수정란의 부화 후 60일 만에 전량 폐사하

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부화 후 약 10개월 동안 성장이 빠른 치어는 약 20cm까지 자라나는 등 명태 인공종묘 생산기술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동해 바다에서 어업인들이 잡은 국내산 어미명태 7마리도 현재까지 실내 수조에서 순조롭게 관리하고 있어 중간성어 육성 기술 확보에도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 국내산 명태의 분포지역 분석 등에 따라 주요 산란 및 회유구역으로 추정되는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이



정부의 명태 관련 포스터.

나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가두리시설에 방류하는 명태 치어 5000마리는 해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먹이섭이 및 생태특성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동해 명태를 국민 식탁에 다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태 인공종묘 생산과 생태연구 기술이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러한 목표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KMI, 2016년 수산업 전망대회 개최

어업생산량 전년비 보합세 유지 ... 양식어업은 소폭 증가할 듯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 증가세 예상 ... 어업인 고령화 추세 지속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월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임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 등 수산해양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어업생산 등 수산 관련 부문별 전망과 함께 어촌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나온 수산 관련 전망 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 주>



2016년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수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해 수산업을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2016년 해양수산전망대회에 앞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 한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2016 KMI 해양수산전망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올해 수산업 부문별 전망에 따르면 어업생산량은 약 338만톤에 달해 지난해(337만8000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문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

하는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면허면적의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산물 물가지수 중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해조류가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나 어류와 패류 부문의 호전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

했던 수산물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보합세가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돼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수산물 소비의 경우 지난해 부진에서 다소 깨어나겠으나 어업의 부가가치는 중간투입 비용의 상승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어촌 및 어가경제 부문의 경우 어가인구는 지난해 13만8000여명에서 12만명선으로 떨어질 것이며, 고령화 비율 역시 지난해 34.5%에서 36.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어가소득은 생산자 수취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어가수 감소에 따른 가구당 생산증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2.7% 정도 오른 345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우수공동체 / 제주 김녕공동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의 대표적인 해녀마을

제주도 북동쪽 김녕리에 위치한 반농반어 마을, 해녀마을로 유명한 김녕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위원장 한경호)는 지난 2006년 1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이래 제주도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오고 있다. 140여명의 해녀가 참여하고 있는 김녕공동체의 주소득원은 소라, 전복, 해삼, 우뚝가사리이다. 이곳에서는 잠수회장을 비롯한 7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입어활동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자원관리에 임하고 있다. 전복은 11cm, 오분자기는 5cm, 소라는 7.5cm로 종전보다 채포체장 규격을 확대하고, 입어시간도 1일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또 철저한 계통출하로 예측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이같은 자원관리 노력에 힘입어 김녕공동체의 생산소득은 지난 2012년 4억7200만에서 2014년에



해녀마을로 유명한 제주 김녕 공동체가 요트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도의 모범적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인 김녕 공동체는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어촌마을 모델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는 6억3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김녕공동체는 맞춤형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어 전 안전교육 강화했다. 또 '해신제'라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위해 홍해삼 등 다양한 수산 종묘사업을 펼

치고 있다. 특히 김녕공동체는 전국 최초로 요트마을, 국제 요트학교도 운영중에 있다. 요트마을은 요트산업과 관련한 전문 인력양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요트 조종술, 마리나 운영관리 등 교육을 통한 인력도 양성 확대해 나

가고 있다. 더불어 비어기인 6~9월 요트투어 상품과 연계해 해녀와 연계한 체험상품 개발로 어업의 소득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경호 김녕공동체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벽화거리 조성 등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어촌마을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녕공동체는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김녕 자율공동체라는 타이틀로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그동안 갈라졌던 두 개의 어촌을 하나의 어촌공동체로 통합해 발전하는 모습, 앞으로의 비전 등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어촌문화 등을 잘 표현해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행사 중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물동정



△김경석 해양수산부 장관 = 1월4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표적 수산물도매시장인 수협 강서공판장을 찾아 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경실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 최근 국내 최초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품질, 환경, 안전보건 3개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강진갑 패류살포양식수협 조합장 = 1월7일 패류살포양식수협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4선 고지에 올랐다.



△김경옥 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박사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5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사

■ 해양수산부

〈별정직공무원〉 △장관정책보좌관 김희근, 이창호 〈서기관〉 △장관 비서실장 이경규 △창조행정담당관 권순욱 △항로표지과장 김영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최국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평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윤석홍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 임채호

■ 수협중앙회

〈부장급 승진〉 △조합지급부장 박현호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장 송현규 △경남지역본부장 김명철 △경제기획부장 김시중 △기공물류부장 박중근 △선원지원실장 이승룡 〈팀장급 승진〉 △홍보팀장 박정순 △공제기획팀장 김상진 △인천어업정보통신국장 김정섭 △공제전산팀장 이창현 △보험상품팀장 조두영 △양식보합팀장 고성용 △전북공제보험지부장 박종선 △주식운영팀장 김인교 △운용기획팀장 정종춘 △조합정보팀장 윤진철 △방송팀장 서재권 △대구공판장장 이용호 △상품개발팀장 강혁중 △수급관리팀장 김경우 △중국청도대표처소장 이정도 △회원경영지원부 박형중, 김풍근 △경제기획부 임구수 〈부장급 전보〉 △자재사업부장 민봉식 △상호금융부장 양동욱 〈팀장급 전보〉 △상품영업팀장 이기흥 △리스크관리팀장 김동섭 △어촌지원단장 오승택 △보험관리팀장 조사의 △여신지원팀장 박용규 △기금관리팀장 주홍보 △안전조업상황실장 조강훈 △조합감사실 최광성 △회원경영지원부 전다윗 〈부장급 보직부여〉 △홍보실장 전대지

1월의 웰빙 수산물 '도루묵, 미더덕·오만둥이'



해양수산부는 1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도루묵과 미더덕·오만둥이를 선정, 발표했다. 이 두 품목은 1월 한 달 동안 10~20% 저렴하게 판매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홈페이지(www.mof.go.kr)를 통해 도루묵과 미더덕·오만둥이의 영양과 요리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수산물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국수산회, 최우수 해외홍보물 대상 수상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최우수 해외홍보물 대상을 수상한 'K-FISH' 광고.

한국수산회(회장 박재영)가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해외홍보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산회가 출품한 'K-FISH' 영문 영상광고는 해외 주요국의 TV에 한국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미각과 식감의 조화를 살린 영상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행사이다. 시상식은 12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수연 신임회장에 김재만씨 선출



제15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에 김재만(51) 한수연 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한수연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동작구 한수연회관 강당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제15대 선거직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열린 부회장 선거에서는 △김성만 강원도연합회 감사 △박병찬 전남도연합회 회장 △주승호 여수시연합회 회장 △황희수 경남도연합회 부회장 △김창현 제주도연합회 회장 △전성기 보령시연합회 회장 △이만식 한수연중앙연합회 부회장 △이은우 울산시연합회 회장 △강대홍 전북도연합회 회장 △엄준 경남도연합회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수연 회장단 이취임식은 1월2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양식장 관리 가능

수산과학원, 어장관리 첨단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전통산업인 양식업이 첨단 미래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양식현장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식어류는 수온, 산소량, 수질 등에 민감해 실시간으로 양식장 환경을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은 잠시라도 양식장을 비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개발로 양식장 환경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상수온이나 재난상황 발생으로부터 양식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돼 양식장 관리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

수협·산림조합

중국 VIP.com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8일 뉴욕 증권거래소(NYSE) 상장 업체이자 중국 3대 온라인 쇼핑몰 VIP.com(현지명 웨펑회이)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수산물과 임산물을 중국 본토 직구족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신용산 VIP.com 한국 총경리,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왼쪽부터) 한국 수산물과 임산물의 대중국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년도 수협 장학관 입사생' 모집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 도시유학 자녀 주거비 경감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자녀를 도시로 유학보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 수협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

지난 2014년 2월에 개관한 '수협 장학관'은 서울 양천구에 자리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총 55실(남 27실, 여 28실)의 수용 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사생은 별도의 기숙사비를 내지 않고 매월 전기, 수도 등의 관리비용만 부담하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수협 장학관' 지원대상은 어업인 자녀로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이며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2월4일까지 관할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사생 선발에 관한 내용은 어업인재단 홈페이지(www.fecwf.or.kr)와 어업인재단 사무국(☎02-2240-0404) 또는 회원조합 지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양식장 관리 가능

수산과학원, 어장관리 첨단 시스템 개발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은 양식장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수온·용존산소 등 어장환경정보가 수집돼 어업인들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개별 양식장 환경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실시간 수온 어장관리시스템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통영시내 10개 양식장에서 시험 운영 중이며 환경정보 모니터링 기능 이외에도 냉수대주의보, 적조속보, 각종 수산재해 속보, 기상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식어가는 표준화된 관측장비와 네트워크 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